

Senior Mission Newsletter

2018. 06. 30.
2018년 02호



<http://www.seniormission.or.kr>
<https://www.facebook.com/seniormissionkorea>



하모니 유치원 공부하는 모습. 팔짱을 끼는 것은 선생님께 드리는 최고의 존경의 표현 (사진: 미얀마, 허영 선교사)

contents

- 2 시대적 부르심 앞에
- 3 선교와 하나님 나라
- 5 2018년 시니어선교한국 이렇게 달라졌어요!
- 6 시니어선교한국에 실행이사로 참여하면서
- 7 시니어선교한국 사무국과 서울경기 지역 소식
- 12 리더십 칼럼
- 13 지역선교회 소식 - 대전시니어선교회

- 14 지역선교회 소식 - 순천시니어선교회
- 15 지역선교회 소식 - 광주전남시니어선교회
- 16 지역선교회 소식 - 대구경북시니어선교회
- 17 지역선교회 소식 - 전북시니어선교회
- 18 협력단체 소식 - 뉴저지실버선교회
- 21 협력단체 소식 - 뉴욕실버선교회/호주시니어선교회
- 22 협력단체 소식 - 한국예향침술선교회
- 23 이모작선교네트워크 이야기
- 24 시니어선교한국 기도제목 및 공지사항



시대적 부르심 앞에

글 : 최철희 선교사 (시니어선교한국 대표)


지난 10년 간 시니어선교한국은 참으로 놀라운 사역의 영역을 꾸준히 확장해 왔습니다. 서울·경기 지역에서 시작한 시니어선교 운동은 지방의 여러 곳으로, 또한 해외로까지 확대되었고, 선교학교의 개설, 협력선교사 파송 그리고 4대 비전에 따른 국내외 선교단체들과의 좋은 협력관계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강권하셨으며,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 이시영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 분 모두의 헌신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시니어선교한국이 창립된 지 만 1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선교를 위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 주길 바라실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 사실 세계 선교가 어려워져 가고, 한국 교회도 점점 힘을 잃고 있다고 하는 이 때에 왜 성령께서는 유독 한국교회의 시니어들을 일깨우시고 계시는가? 세계 선교 역사상 어디에도 없었던 시니어선교 운동을 왜 지금 이 땅에 일으키시는가? 우리 <시니어선교 운동>이 세계 선교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한국교회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에게 맡기신 시대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저는 사실 제 자신이 시니어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두 번째 선교단체의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체에서도 창립된 지 10년 만에 2대 대표가 되었고, 이번에도 창립 10년 만에 2대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저는 계속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는가 보다”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침, 제가 기도하다가 문득 <퍼즐>이란 말이 기도 중에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의미를 일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퍼즐>과 같다. 이 퍼즐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다. 많은 조각 조각들이 그 하나로써 의미를 알 수도 없고, 하나로만 있을 때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그것들이 하나 하나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되어갈 때 참으로 경이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종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 이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 하나 하나의 조각들이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작고 쓸모없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단 하나도 같은 것이 없고, 단 하나라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없는 아주 중요한 조각들이라고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이루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 퍼즐의 완성을 위해서 시니어선교한국은 한국선교와 함께, 세계선교와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대적인 부르심을 함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크고 작은가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시니어 공동체를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도록 다시 한 번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와 하나님 나라

시니어선교한국 4대 비전을 묵상하며

글 : 느헤미야 선교사
(시니어선교한국 상임총무)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시대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 때 많은 종족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교운동이 본격화되고 조선반도도 복음화되는 거룩한 여정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

18세기 개신교 선교시대가 열리며 모라비안들과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연안선교시대’(인도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대륙의 주로 외국인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선교가 활성화되었던 시기들) 이후 중국의 내지로 깊이 들어가며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 ‘내지선교’란 개념이 선교를 더 한단계 올리며 세계선교를 이끌어 갔던 시대가 있었다.

이후 도날드 맥가브란과 랄프 윈터 의해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 선교시대’가 열리며 정치적으로 구분된 나라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nation)는 문화와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종족(ethnic group)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개념이 교회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불과 얼마 안 되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제 세계선교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evolution) 것을 보게 된다.

2018년 6월 현재 세계의 난민 숫자가 6,850만 명에 달하고 한해 이주민의 숫자가 2억 2천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보며 한국에도 이미 해외에서 이주한 사람들(노동자/유학생/다문화가정)이 2018년 현재 230만 명에 달하는 과거 5,000년 역사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한반도로 가고 있음을 본다. 즉 ‘디아스포라(이주민과 난민) 선교시대’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음을 직시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와 현상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함께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주민과 난민에게 있음을 지역교회가 간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시대마다 펼쳐지는 선교의 상황과 양상을 놓쳐서는 안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선교를 과거의 개념(지역개념 및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으로 보는 것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기를 바라며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는 관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훨씬 깊고 광대한 개념으로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영역을 다스리시는 ‘Kingdom of God’의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통치 개념(Jesus is King)을 좀 더 확실히 하는 것도 더없이 중요한 선교의 개념이라고 사료된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이 더 각인되어야 할 것이고 엠 4:13(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리니)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복음이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덕목이 새롭게 조명될 때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revelation)가 다르다는 점도 나누고자 한다. 예를 들면 루터나 칼빈은 선교를 전혀 모르고 강조도 안 했던 종교개혁시대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구체화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즉 존 파이버 목사님께서 언급했듯이 열방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편만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더 새롭게 인식되고 풀려져야 할 때임을 강변하고자 한다.

시대마다 선교의 양상과 paradigm이 바뀌어 온 것을 기억하며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단 2:44)라는 말씀과 같이 시니어선교한국이 설정한 4대 비전(해외선교 • 이주민선교 • 북한선교 • 다음세대선교)은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잘 부합하는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라고 스스로 극찬하고자 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취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며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시 67:1-3)

할렐루야!!! 



NEW

2018년 시니어선교한국 이렇게 달라졌어요!

신임대표 취임

2018년 2월 22일 제8회 정기총회에 대표 이·취임식이 있었다. 지난 2011년 8월 29일 시니어선교한국 이사회 창립총회 시 대표직에 취임하여 6년 6개월간 시니어선교한국의 대표로 섬겼던 이시영 장로에 이어 최철희 선교사가 2018년 2월 9일 실행이사회에서 추천과 심의를 거쳐 신임대표로 선출되었고 2월 22일 정기총회에서 취임을 하였다. 최철희 선교사는 前 기업인이며 키르기스스탄 선교사, WEC선교회 한국대표를 역임하였으며 2011년 3월부터 시니어선교한국 사역에 합류하여 이모작선교네트워크 사역을 시작하고 실행이사로 섬겨왔다. [⇒관련기사 7페이지]

실행이사회 변동사항

2018년 2월 배순호 선교사와 최혜숙 선교사가 실행이사를 사임하였고, 김영휘 목사, 신호현 선교사, 이광연 선교사를 3월부터 실행이사로 영입하였다. 현재 대표 최철희 선교사, 상임총무 느헤미야 선교사, 이시영 장로, 정송현 선교사, 전철한 선교사, 권혁일 장로, 허종학 장로, 정대서 장로, 김영휘 목사, 신호현 선교사, 이광연 선교사, 이상 11명이 실행이사로 섬기고 있다. [⇒관련기사 6페이지]

위원장 임명

시니어선교한국의 4대 사역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2018년 5월 18일 실행이사를 중심으로 각 (분과)위원장을 임명하였다. 조직과 위원장은 아래와 같다.

- 선교훈련원장 : 느헤미야 선교사
- 이주민선교위원장 : 전철한 선교사
- 북한선교위원장 : (공석)
- 중보기도위원장 : 정송현 선교사 / (부) 최혜숙 선교사
- 해외선교위원장 : 이광연 선교사
- 다음세대위원장 : 이시영 장로 / (부) 허종학 장로
- 선교동원위원장 : 김영휘 목사

용어 변경

4대 비전 중 차세대는 다음세대로, 국내외국인은 국내이주민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시니어선교한국의 4대 비전은 ①해외선교, ②국내이주민선교, ③다음세대선교, ④북한선교이다.

비영리임의단체 등록

시니어선교한국이 2018년 6월 12일 분당세무서에 비영리임의단체로 등록하였다.

시니어선교한국에 실행이사로 참여하면서



김영휘 목사

미국 이민교회와 국내교회(40여 년)를 은퇴한 목사(장로회합동측)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수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목회학박사
총회GMS명예선교사(훈련동원순회지역)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운영위원
한국카이로스(Kairos) 퍼실리테이터

먼저 본 회 이사로 섬기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부담 holy burden과 함께 귀한 책임 또한 느낀다. 잘 아는 대로 창17장부터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래”가 “사라”란 이름으로 바뀐다. 이는 그들이 단지 한 가문의 어른이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신앙인과 열국의 어른이 됐다는 뜻이다(5절, 16절). 오늘날 시대와 선교지의 급변에 따라 시니어들의 사명과 역할이 요청되는 때 여전히 한 가문과 한 교회의 “아브람”과 “사래”로 머물고픈 시니어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어떤 이는 이를 가리켜 “동결된 자산” frozen property이라 부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문과 한 교회의 “아브람”과 “사래”들로 동결된 채 머무르지 아니하고, 열방을 향한 어른인 “아브라함”과 “사라”들로 부르시고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동원에 시니어선교한국의 사명과 기대가 더욱 크다 하겠다.



신효현 선교사

캄보디아 라이프대학교 교수
(국제경제법 담당)
前 호서대학교 교수,
주 호주대사 • 함경북도 도지사

저는 시니어 선교한국의 주선으로 2015년 9월에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에 있는 기독교 종합대학인 라이프대학교에서 강의하고 2018년 8월에 귀국 예정입니다. 이제 라이프대에서의 강의는 일단 마치고, 앞으로는 시니어 선교한국의 실행이사로서 일하려고 합니다. 시니어선교한국은 설립된 지 불과 10여 년에 불과하지만 그간 이룩한 업적은 놀라울 정도이며 저도 앞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4년을 보내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며 좀 더 일찍 선교현장에 가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니어 선교한국의 실행이사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스럽게 일함으로 시니어선교한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광연 선교사

서울영동교회 장로,
前 캄보디아 아돌람센터(학사사역)
前 국가공무원

‘인생후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 이끌림으로 시니어선교한국에 발을 내디딘 지 6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시니어선교는 역사와 시대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요청이었고 인생후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다 기꺼이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시니어선교한국 협력선교사로 다녀오게 되었고 이제 다시 시니어선교한국에 실행이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실행이사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시니어선교를 우리 모두에게 시대적 사명으로 부여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비록 미력이나마 하나님나라 확장에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시니어선교한국 사무국과 서울경기 지역

■시니어선교한국 제8회 정기총회 (2018년 2월 22일)

제8회 정기총회가 2월 22일(목) 오후 2시30분~7시 30분, 서울영동교회 교육관 5층에서 열렸다. 상임총무 느헤미야 선교사가 인도하여 총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순서가 시작되었다. 1부 개회예배는 전북시니어선교회 회장 전봉권 장로의 시작 기도,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라는 제목으로 박태동 목사(대구경북시니어선교회 지도위원, 비라카미선교회장)의 설교와 축도가 있었다. 장종원 목사(순천시니어선교회 총무국장, 독수리교회)의 집례로 성찬식을 거행함으로써 1부를 마쳤다. 2부 회무처리 시간은 이병찬 장로(대구경북시니어선교회 신임 회장)의 기도로 시작하여, 대표 이시영 장로가 개회 인사말 겸 퇴임사를 전하였다. 순서에 따라 서기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가 있었고, 2018년 총회 임시조직안과 사업계획안, 예산안 발표가 있었다.

기타토의 안건으로, 신임 대표 선임의 건이 다루어졌다. 지난 6년 6개월 동안 대표로 수고해주신 이시영 장로가 대표직을 사임하기로 하여 지난 2월 9일 실행이사회에서 최철희 선교사가 차기 대표로 선출되었음을 공표하니 전원이 박수로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또한 2016년 글로벌 컨퍼런스, 2017년 시니어선교한국 5회 대회를 하였고 올 여름에는 가족수련회를 2박3일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 1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시영 장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2018년 사업계획과 사역 재정을 놓고 합심기도하고 정동훈 장로(광주전남시니어선교회 회장)의 기도로 2부 순서를 마무리하였다.

3부는 협력선교사 위촉 파송식으로 시작하였다. 협력선교사 6Unit/ 7명에게 위촉 파송장을 수여하고 파송소감을 듣고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기사 11페이지]. 이어서 대표 이·취임식이 있었다. 퇴임하는 이시영 장로에게 좌측은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꽃다발을 수여하였다. 최철희 선교사는 취임사에서 ‘지난 10년 하나님의 열심이 시니어선교한국을 시니어선교 운동의 대표적인 단체로 만드셨으며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는 시니어선교한국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가고 계신다. 시니어선교 한국의 한사람 한사람도 이 퍼즐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시대적 부르심을 함께 받은 동역자들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취임사를 하였다. 실행이사와 지역 회장 등 12명이 최철희 신임대표를 위해 안수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고 이시영 장로가 축복하며 마무리 기도하였다.



(위에서부터) 설교·축도 박태동 목사/
성찬식 장종원 목사/ 회무처리/ 단체사진



대표 이·취임식



신임대표 최철희 선교사 취임인사



신임대표를 위한 안수기도



이·취임식 후 실행이사, 지역 임원들과 함께



협력선교사 파송식



사역나눔_광주전남시니어선교회



대구경북시니어선교회 신·구 대표



폐회기도 전철한 목사

이어 전북시니어선교회(발표: 회장 전봉권 장로), 광주전남시니어선교회의 사역나눔(회장 정동훈 장로)과 태국 선교를 떠나는 양희성/김혜인 선교사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대구경북시니어선교회(발표: 이인희 총무국장)와 대전시니어선교회(이연필 회장), 예방회(총무 송치영 안수집사), 이모작선교네트워크(최철희 선교사) 순으로 사역나눔이 이어졌다. 시간관계상 순서 중간에 도시락을 배부하여 저녁식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석한 선교사들과 지역 임원들을 소개하고 느헤미야 상임총무의 기도 인도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합심하여 기도한 후 전철한 목사의 마무리 기도로 총회 모든 일정을 마쳤다.

(총회 재적 73명 중 출석 43명/ (참관 포함) 총 참석인원 69명)

■이호영 박사 초청 특별강연

4월 2일(월) 오후 7시~8시 30분, 서울영동교회 교육관 5층에서 이호영 박사를 모시고 「최신 뇌과학 발달에 따른 정신건강 (부제: 치매예방을 위한 식이요법)」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이 있었다(참석 85명).

(이호영 박사: 연세대 의대 정신과 주임교수, 대한신경정신학회장, 아주대 병원장·의대학장·총장 역임, 정동제일교회 원로장로)



■제12기 서울경기 시니어선교학교

제12기 서울경기 시니어선교학교가 3월 22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30분, 보은예수마을 1박2일 수련회와 국내이주민선교사역지 탐방을 포함하여 11주간 총현교회 베다니홀에서 있었다. 매 강의와 조모임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서경12기는 32명이 등록하여 29명이 수료하였다. 선교학교 기간 중 캄보디아 라이프대학 구견희 총장, 미얀마 허영 선교사, 그리스 난민사역 김미영 선교사, 말레이시아 말라카 최청인 선교사와 말라카 팀, 볼티모어 허인욱 장로, 뉴질랜드 오클랜드 봉유중/변화영 선교사 등이 학교를 방문하여 사역을 나누었다.



보은예수마을 수련회 단체사진(2018.04.21)



보은예수마을 수련회 나눔시간



국내이주민사역지 새생명태국인교회 탐방



수료식 단체사진(2018.06.07)

■하늘꿈학교 방문

4월 25일(수) 시니어선교한국에서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 11(북정동)/ 학교장 임향자 목사)를 방문하여 사역에 대해 듣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늘꿈학교는 2003년에 개교한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국내 최초의 학교로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청소년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 교육의 도구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북한선교센터이다. 또한 사역 특성상 교사와 학생이 함께 사는 그룹홈형 기숙사 10채도 운영하고 있다. 하늘꿈학교에서는 시니어들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역에 협력·동역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날 탐방은 실행이사 5명, 중보기도팀 11명, 스텝 포함 총 18명이 참석하였다.



■차세대포럼 및 확대실행이사회 (6월 2일)

6월 2일(토)에 시니어선교한국과 4/14원도우한국연합이 공동주최한 다음세대 포럼이 광주동명교회 교육관 아트홀에서 열렸다. '차세대 교육 패러다임 바꾸기, 교회가 부모와 가정을 중심에 세워라'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선 가정친화적인 교회교육 방안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진행되었다. 강사로 초청된 세계변혁운동 가정 챌린지 퍼실리테이터 매튜 링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가정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하셨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세대를 건너 이어지려면 반드시 의지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박상진 교수는 "교회는 더 실제적인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해 가정을 위한 실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1부 포럼에는 어린이 선교단체와 전문사역자,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4시 30분부터는 2부 순서로 시니어선교한국 확대실행이사회가 광주동명교회 교육관 404호에서 실행이사들과 각 지역선교회 임원들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18년 가족수련회 일정 공지와 협의, 시니어선교한국의 조직을 강화·확충하기 위해 임명한 각 분과위원장을 소개하고 4대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각 선교학교 수료생부터 그룹핑을 해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각 지역선교회 간의 fellowship을 위한 방안으로 각 지역 선교학교 훈련원장을 중심으로 선교학교 커리큘럼을 협의, 각 지역 중보기도팀 활성화와 연합, 협력선교사 허입기준과 오리엔테이션 안내 등을 의제로 회의하였다. 차세대포럼과 확대실행이사회회의의 장소와 식사 등을 제공하고 성의를 다해 섬겨주신 광주전남시니어선교회와 광주동명교회에 특별히 감사 드린다.



1부. 차세대포럼



2부. 확대실행이사회

■뉴저지실버선교회 Christian Village Project 과테말라 후티아빠 기금 모금액 송금 (USD700, 실행이사회)

■회의 - 실행이사회 : 3월 20일(화), 4월 19일(목), 5월 18일(금), 6월 29일(금) / 확대실행이사회 : 6월 2일(토)

■모임 - 연합중보기도모임 : 3월 21일(그리스 난민사역 김미영 사모), 4월 11일(하늘꿈학교 임향자 교장), 5월 2일(느헤미야), 5월 30일(마크비서) / 귀국시니어선교사 모임 : 3월 26일(월), 5월 28일(월)

■외부행사 - 3월 27일(화) IBA, BAM 포커스 느헤미야 선교사 참석(사랑의 교회 N501)/ 4월 26일, 28일 목양감리교회 DTS 느헤미야 선교사 강의/ 6월 18일(월)~6월 21일(목) 2018년 세계선교대회 & 제7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 VII) (부산 수영로교회/주제 : "함께, 그날까지! (마24:14)" 부주제 :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주 예수 그리스도!" /최철희 선교사, 김영휘 목사, 전철한 선교사, 허종학 장로, 이광연 선교사 참석) 등

■경조사 및 멤버 소식 - 4월 23일(월) 분당 중보기도팀 이순옥 집사 소천/ 6월 4일(월) 박명준(/김미연) 선교사 부친상/ 키르기스스탄 김옥열 선교사 5월 4일 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 중

■ 협력선교사 위촉 파송 소식

• 일시 : 2018년 2월 22일(목) 제8회 정기총회 / • 장소 : 서울영동교회 교육관 5층

● 51번째 협력선교사 : 김옥희 선교사

사역지역 : 말레이시아 말라카

사역내용 : 어학원 한국어교사

소속단체/교회 : 천성장로교회 (서경11기)

● 52번째 협력선교사 : 이규중 선교사

사역지역 : 인도 찬디가르

사역내용 : 현지인교회에서 영어, 수학, 미술교사(최향신 선교사 사역에 협력)

소속단체/교회 : 서울영동교회 (서경3기)

● 53번째 협력선교사 : 김효생 선교사

사역지역 : 태국 치앙마이

사역내용 : 유아교육(몬테소리), 태국 내 로힝야족 어린이교육

소속단체/교회 : 백주년기념교회 (서경11기)

● 54번째 협력선교사 : 안경한/성현숙 선교사

사역지역 : 태국 치앙마이

사역내용 : 소수민족과 미얀마인 대상 이미용 등 지역사회 봉사, 팀 협력사역

소속단체/교회 : 지구촌교회 (서경11기)

● 55번째 협력선교사 : 서희돈 선교사

사역지역 : 순회사역(필리핀, 중국, N국)

사역내용 : 필리핀 민도르섬 지역개발, 연변과기대 학생 교육, N국 농업지원, 구제

소속단체/교회 : 대구 내당교회 (대구경북시니어선교회)

● 56번째 협력선교사 : 주향래 선교사

사역지역 : 순회사역(필리핀,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

사역내용 : 필리핀 민도르섬 신학원, 직업학교 운영, 중국 길림성 신학교 교회 운영, 동남아시아 지역 자립선교 지원

소속단체/교회 : 임마누엘선교교회선교센터 (서경11기)



■ 2018년 하반기 협력선교사 오리엔테이션

• 일시 : 2018년 7월 4일(수)~7월 7일(토) 4일간 / • 장소 : 시니어선교한국 사무국 회의실

• 대상 : 2018년 8월 17일 파송 예정 또는 준비 중인 6Unit, 8명

■ 뉴질랜드 시니어선교회(NZSM) 창립총회

7월 28일 예정/ 대표 최철희 선교사와 상임총무 느헤미야 선교사 7월 26일~8월 2일 뉴질랜드와 호주 방문

■ 2018 가족수련회

• 일시 : 2018년 8월 15일(수)~17일(금) 2박 3일

• 장소 : 대구 계명대학교 명교생활관

• 주제 :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시 1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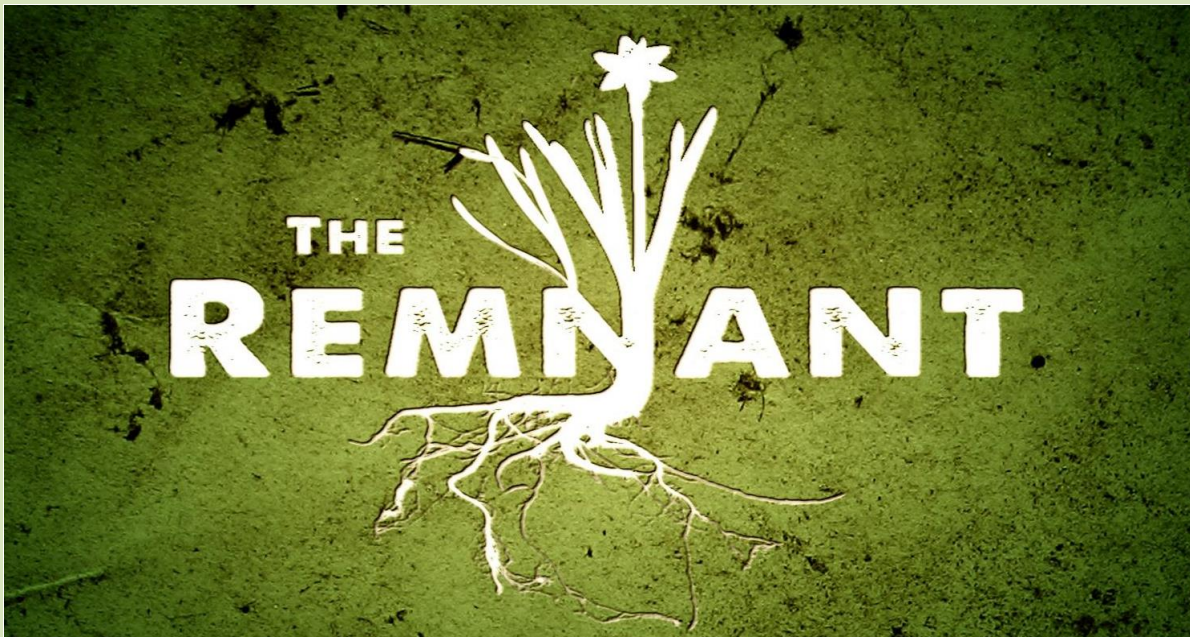
• 주강사 : 이한영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구약신학)

2018 가족수련회는 멤버들 간에 비전을 더 깊이 공유하고 유대감을 돈독히 하며, 시니어선교한국 지난 10년을 회고하며 향후 전망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다. 시니어의 한계와 장벽을 돌파하고 기존의 선교 패러다임을 넘어 한 단계 도약하는 가족수련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주강사 이한영 교수의 메시지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 제13기 서울경기 시니어선교학교

• 일시 : 2018년 10월 2일(화)~12월 4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30분, 11주간

• 장소 : 성민교회 (서초구 효령로 110, 지하철 2호선 방배역 2번 출구)




김영휘 목사 (시니어선교한국 실행이사)

터키와 이란 부근에 ‘아르메니아’라는 작은 나라가 있다. 그들은 성지인 예루살렘의 4대 종교의 통치지역 중 하나(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아르메니아 정교)를 차지하고 있고, AD.301년에 기독교를 최초로 국교화한 나라로 로마보다 앞선다. 당시 중동의 북부지역 전체를 지배했던 5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였으나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페르시아, 로마, 오스만터키, 러시아에 이르는 주변 강대국들에게 계속 짓밟혀 지금은 남한의 3분의 1에 불과한 작은 국토를 지닌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그런 극심한 고난가운데서도 곳곳하게 살아남은 민족으로 이 생존의 힘은 다름 아닌 신앙에 있다. 곧 ‘남은 자의 신앙’ remnant faith이다. 이 나라는 노아의 방주가 멈추어 선 곳으로 추정되는 아라랏 산의 원주인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수도인 ‘예레반’은 그 이름도 방주를 지은 노아가 ‘찾았다.’라는 말을 한 것에서 유래한다(창8:4). 성경과 아주 밀접한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철저히 이 세상에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 900만이 흩어져 있고 자기 땅에만 300만 명이 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성직자를 1년에 2명 정도만 낸다고 한다. 그만큼 가장 우수한 사람을 가장 잘 훈련시키고 서방의 훌륭한 대학에서 공부를 시킨 후 그 가운데서도 년 2명 정도의 성직자밖에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을 통해 아르메니아 전체의 영적 정신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숫자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소수의 지도자는 국민전체로부터 절대 신뢰를 받아 중요한 일을 조연해 주고 있으며 민족전체를 명실공히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종교란 결코 양(量)이 아니라 질(質)의 영역이다. 종교를 양(量)의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책도 무게로 평가할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양(量)에 치우치는 바람에 지금 거센 역풍(逆風)을 맞고 있다. 질(質)로 향하도록 그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둠의 영과 죄악과 세속적인 가치로 팽배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은 자의 신학(신앙)’(사6:13)이야말로 신앙의 질과 생각과 삶과 행동을 진정 바꾸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사람을 키우고 성도를 키우고 목회자와 선교사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양(量)보다는 질(質)로 방향전환을 해야 만이 진정한 리더십이 세워질 것이라 본다. 

대전시니어선교회

T. 070-8809-2009 <http://cafe.daum.net/smsdaejeon>

■제9기 대전시니어선교학교 수료생 비전트립 <라오스>

- 일시: 2018. 1. 26. ~ 2. 3 (8박9일) / • 참여자 : 14명 / • 방문 도시: 브엔티안, 루앙프라방,
- 활동내역 (브엔티안, 1박 2일, 방문 및 사역) : Laos Korea College (LKC) 방문
- 활동내역 (루앙프라방: 6박7일, 방문 및 사역) : 미라클 교회/미라클 센터, 돈마이초등학교/반픽너희초등학교, 고아원학교/기술대학교/과학학교/유기농농원, 녕혜야 교회/후와이야 교회, 수파누봉대학교/적정기술센터/배재대 사업단

■2018년 대전시니어선교회 총회

- 회의 일시 : 2018. 4.20.(금) 17:00~21:30
- 회의장소 : 대덕교회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소재)
- 참석자 : 강부현, 고현숙, 권혁일, 김기환, 김은가, 김희순, 노정구, 송호숙, 유기호, 유한봉, 이연필, 이창래, 이창섭, 이해순, 임대영, 정낙삼, 정희주, 조선구, 조춘자, 지순화, 최견분, 황승구, 황준석 (23명)
- 사업계획



대전시니어선교회 총회(2018. 04.20.대덕교회)

(1) 제10기 시니어선교학교 개설, 운영

- 기간: 2018.10.11~11.29(매주 금요일), 8주간 / • 장소: 대덕한빛교회(예정)
- 대상 및 인원: 대전 인근지역 시니어 교인, 30명 내외

(2) 비전트립 프로그램의 다양화

- 해외 비전트립은 지역선교회 주관으로 특성화 추진(기존 3개지역 외 개척; 네팔,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등)
- 국내 아웃리치 형태의 다문화/순교지 탐방프로그램 활성화

(3) 대전시니어나눔회 활동

- 라오스 재료공학과 개설프로젝트에 기술공여기관으로 참여
- 수파누봉대 재료공학과 개설 홍보를 위한 Science Camp 개설(예정)
- 직업전문기술학교 개설(추진)
- 국내 다문화선교회와 연계하여 나눔프로젝트 개발, 시행

(4) 캄보디아 Science Camp 나눔활동 참여

- 협력기관: UST(배대환교수, 학장) / • 참가형태: 공동개최 / • 참여빈도: 연 3~4회 목표
- 현안사항: 특강자원자(volunteer) 및 재정지원기관(sponsor)

(5) 시니어이미용스쿨 개설

- 기간: 연중 수시로 개설 / • 장소: 시니어사무실(첨단상가 2나206호)

❖ 2018~2020 회기 임원 선출

- 회장 김은가, 감사 정낙삼, 선교훈련원장 유한봉, 상임이사 권혁일
- 운영이사, 협력이사, 자문위원 선임 및 고문제도 신설: 회장단에 일임하였다.
- 총회 후속조치로 노정구, 이연필 전임회장을 고문으로 모시기로 하였다.

■캄보디아 사이언스 캠프 개최

- 참가자: 이연필, 김기환 / • 활동기간: 2018. 6. 3~ 6. 9

순천시니어선교회

<http://cafe.naver.com/sc4080>

■제6기 순천 시니어선교학교

- 일정 : 2018년 4월 3일(화)~6월 5일(화)/ 9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30분
- 장소 : 순천세광교회 • 순천북부교회 • 순천한소망교회

1) 개강 : 4월 3일(화) 오후 7시

순천세광교회 교육관에서 제6기 개강식을 가졌다. 67명이 등록한 가운데 회장 강태현 장로의 인도로 본부장 현용진 장로의 기도 후 이사장 홍정래 목사가 “케룩스가 되어라”(마10:5-10) 말씀을 전하고 축도로 개강예배를 마쳤다. 제2부 개강식후 첫째강의 고희원 목사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2) 국내선교지 탐방 : 5월 26일(토)

오전 9시 30분 출발을 해서 충남 서천 성경도래지, 군산 구암교회를 탐방하였다(참석자 35명).

3) 수료식 : 6월 5일(화)

한소망교회 본당에서 제6기 수료식을 가졌다. 회장 강태현 장로의 인도로 본부장 강여일 장로의 기도 후 학교장 김진영목사가 “다리를 놓는 삶” (눅 4:18-30) 말씀을 전하고 양민정 목사(전 이사장) 축도로 개강예배를 마쳤다(수료자 총 59명).

*모범개근상 총16명 : 김상엽, 김신애, 김영순, 김용인, 류명숙, 송은혜, 오예진, 이연미, 이차자, 정상호, 조옥란, 최낙우, 최순길, 최영희, 최옥연, 황금옥

*순천시니어선교회 개인후원 신청자 (총 16명) : 강성순, 김귀복, 김점숙, 김주혜, 박미애, 박병규, 백형택, 송도남, 오초녀, 윤윤례, 이차자, 채성은, 최낙우, 최준경, 황금옥, 황인천

*참가교회(12) : 세광, 성광, 덕연, 한소망, 천보, 승산, 북부, 복음, 하늘샘, 산동제일, 매산여고, 동부교회



충남 서천 성경도래지에서



군산 구암교회에서



순천6기 시니어선교학교 수료식

4) 6기생 해외비전트립

- 일정 : 6월 17일(주일)~21일(목), 3박 5일
- 장소 :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지역 선교지 탐방 및 눅박 소망교회, 교육농장 및 현지 기업농장 방문
- 인원 : 18명(지도목사 홍정래 목사/단장 강태현 장로/ 팀장 박종식 장로(6기 회장) 등 18명)

이번 말레이시아 비전트립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행 1:8) 말씀에 순종하여 18명이 참가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광주전남시니어선교회

BAND 광주/전남 시니어 <http://band.us/#!/band/59443399>

■기도모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90분간 화정동 선교회 사무실에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한국, 통일한국 등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

■제7기 광주전남 시니어선교학교

- 일시 : 2018 4월 3일(화)~6월 26일(화), 12주, 16강좌
- 장소 : 화정교회

■6월 2일(토) 오전 9시30분~오후 6시 차세대포럼과 확대실행 이사회 모임을 광주동명교회에서 가졌다.

■광주기독교단체연합회(86개) 임직원 모임을 시니어선교사무실에서 갖고, 제7회 블레싱 광주행사(5/30 양림교회), 강사 조정민 목사·찬양 고희원 선교사와 4/14 차세대포럼(6/2)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했다.

■하반기에 전철한 선교사(한국외국인선교회)와 함께 「외국인 다민족 선교 세미나」를 광주·전남권 목사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기도하고 있다.



+ 기도제목

- 광주 1,500개 교회가 연합하여 선교한국과 통일한국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 선교학교 수료생들이 배운 대로 선교적 삶을 살아내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동역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 8월 대구에서 있을 가족수련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시니어선교한국이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최금옥김치
PREMIUM KIMCHI

Life • Nature • Healing

복내 산촌생태마을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여 만든 프리미엄 김치

복내전인치유센터(원장 이박행 목사) 최금옥 부원장은
지난 23년 동안 암환우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자연식이요법으로 섬겨왔다.
안전하고 믿을만한 국내산 재료로 고객의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최금옥 김치에는 자연과 음악(음악예술농법)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다.

[문의 및 주문] 전화 : 061-853-7350 홈페이지 : <http://boknae.kr>

대구경북시니어선교회

<http://seniormission.kr/>

■제5기 대구경북 시니어선교학교(세계선교대학)

- 일정 : 4월 10일(화)~6월 5일(화) 9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 장소 : 대구 범어교회 갈릴리홀
- 결과 : 51명 등록 / 46명 수료



■시니어 1차 세미나

- 일시 : 2018년 3월 22일(목) 오후6시30분 / • 장소 : 대봉교회 / 회원 75명 참석
- 주제 : 한국교회의 희망, 다음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 • 강사 : 배무성 목사(위미선선교 대표)

■제2차 임원회의 - • 일시 : 2018년 4월 3일(화) 오후6시30분 / • 장소 : 범어교회 새교우실

- 임원 8명 참석하여 제5기 시니어 선교학교 사전 준비 점검

■베트남 대구마을 준공식

- 일시 : 2018년 4월 17일(화) ~ 21일(토) / • 장소 : 베트남 동나이성
- 참석자 : 회장 이병찬 장로, 전회장 서희돈 장로, 지도위원 박태동 목사 / • 내용 : 본회 주택 1채(300만원) 지원

■홀리클럽 직능단체 세미나

- 일시 : 2018년 4월 26일(목) 오후6시 / • 장소 : 대구제일교회 100주년기념관 대강당

■국내선교지 탐방

- 일시 : 2018년 5월 22일(화)
- 장소 : 봉화 척곡교회, 영주 내매교회, 안동 안동교회
- 회원 36명 참석

■차세대포럼 및 시니어선교한국 확대실행이사회 참석

- 일시 : 2018년 6월 2일(토) 9시30분~
- 장소 : 광주동명교회 교육관 / 4명 참석

■제2차 운영위원회의

- 일시 : 2018년 6월 14일(목) 오후7시 / • 장소 : 개정식당
- 운영위원 17명 참석하여 ①제5기 시니어선교학교 비전트립 ②시니어선교한국 2018 가족수련회 ③시니어 2차 세미나 계획수립

■하반기 일정

- 해외선교 비전트립 : 일시 : 2018년 7월 2일(월) ~ 7일(토) / 장소 : 캄보디아, 베트남 / 회원 12명 참가예정
- 시니어 2차 세미나 : 일시 : 2018년 7월 중 / 장소 : 대봉교회(예정) / 주제 : 국내이주민선교
- 시니어한국 2018 가족수련회 : 일시 : 2018년 8월 15일(수) ~ 17일(금) / 장소 : 계명대학교 명교생활관
- 회원친목을 위한 국내선교지 탐방 : 일시 : 2018년 10월 19일(화) / 장소 : 보은 예수마을(성막체험)
- 시니어 3차 세미나 : 일시 : 2018년 10월 30일(화) / 장소 : 대구중앙교회(예정)
- 성시화운동 기도회 : 일시 :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7시 / 장소 : 대구서현교회
- 제6회 정기총회 : 일시 : 2018년 12월 15일(토) / 장소 : 대구중앙교회(예정)



국내선교지 탐방

전북시니어선교회

<http://cafe.daum.net/smsjb>

■제3기 전북시니어선교학교

제3기 시니어선교학교가 3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19시부터 21시 30분까지 전주신광교회 교육관에서 있었다. 이번 제3기 선교학교는 전주신광교회 담임 이순태 목사를 제3기 선교학교 교장으로 전체 29명이 등록하여 27명이 수료하였다. 총 9차시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시니어선교한국 전 대표 이시영 장로의 “한 민족에게 기적의 한 세기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시니어의 사명”이란 강의를 시작으로 시니어선교한국 대표 최철희 선교사를 비롯하여 10분의 강사님들의 주옥 같은 강의를 통해 시니어들에게 선교의 큰 비전을 갖게 하였다.

■전북시니어선교학교 전체 수련회

그리고 4월 22일부터 23일, 1박 2일로 동신교회 수련원에서 제1기와 제2기 수료생들과 함께하는 전북시니어 선교학교 전체 수련회를 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선배수료생들의 선교 보고회와 선후배 수료생간의 교제를 나누며 선교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었다.



전북3기 수료생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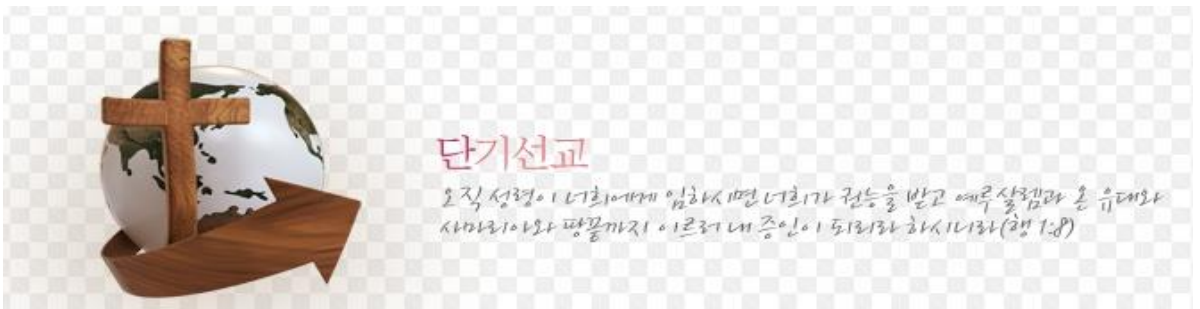


수련회에서 기수별 소개시간, 3기생들
(4월 22일-23일 / 전주동신교회수련원)

■네팔 비전트립

제3기 선교학교를 수료한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11월 5일 출발하여 11월 14일까지 네팔에서 허인석 선교사와 함께 해외 아웃리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네팔 해외 아웃리치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해외 아웃리치여서 첫 번째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알찬 해외 아웃리치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가 된다.

이를 위해 6월 24일 주일에는 전북시니어선교회 운영위원들과 네팔 아웃리치 참가자들이 허인석 선교사를 모시고 제2차 네팔 해외 아웃리치 설명회를 갖고 제4기 전북시니어선교학교에 대한 계획 등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뉴저지실버선교회

■뉴저지 실버미션스쿨 제29기

- 일시 : 2018년 3월 12일(월)~5월 28일(월) 12주간 / • 장소 : 한길교회(이병준 목사 시무)
- 28기 보강생을 포함 14명이 수료

■총체적 선교-후티아빠 선교를 위한 발대식 및 선교사 파송식

- 일시 : 4월 21일(토) 오후 6시 / • 장소 : 뉴저지 하베스트교회(클로스터 소재)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로운 헌신예배를 드렸으며 27명이 후티아빠 실버선교사 calling에 응답하였다. 이 날 뉴저지연합장로교회가 건축한 후티아빠 선교센터를 공동사용 하는 MOU를 체결하였으며 후티아빠 선교에 협력을 새롭게 다짐하였다. 센터 내에 선교사가 중장기로 기거할 6만불 규모의 숙소건물을 연합장로교회와 협력하여 금년 8월 중으로 완공할 예정이다. 일차로 base camp가 마련됨에 따라 후티아빠에 Christian Village Project가 시작될 것이다. 이 총체적 선교 정착자금 모금에 53가정이 동참하였고, 장단기로 사역할 헌신자를 계속 모집 중이다.

(문의 : 부대표 박로식 선교사 (T)201-403-1350 (E) roshikpark@yahoo.com)

● Christian Village Project란?

뉴저지실버선교회(대표 양춘길 목사, 부대표 박로식 선교사)는 15주년 선교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비전, Christian Village Project (New Hope Village = New Life, New Hope, New Day를 지향하는 3N Movement)로 사역방향을 설정했다. Christian Village Project란, 실버선교회가 선교지를 정하고 그 지역(One Village)을 복음화 하기 위한 총체적인(Holistic) 사역을 펼쳐가는 사역이다. 현지 교역자들의 교회 개척을 돕고, 마을 사람들의 생활 개선 및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한 총체적 계획 아래 지속적으로 한 마을을 복음화하는 선교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다. 또한 이것은 "내가 선교지에서 할 일이 무엇이 있어" 하는 실버들을 동원하여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각 분야에서 사역을 분담함으로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집짓기 CAMPAIGN을 통해서 시니어들의 경험과 인적, 물질적, 환경적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면 한 마을을 복음화 하는 총체적 선교가 가능함을 보았고, 이는 지난 15년 간 뉴저지 실버미션스쿨을 수료한 700여 명의 동결된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저지실버선교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기도해 왔고 구체적인 전략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아이티, 발랑 과테말라, 후티아빠,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중 하나님께서 실버선교회를 부르시는 선교지의 순서를 놓고 기도하던 중 먼저 후티아빠로 Christian Village Project 사역지를 정하고,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고 센터를 준비하고 협력선교사를 모집하는 등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제29기 단기선교

- 일정 : 6월 6일(수)~6월 12일(화)
- 장소 : 과테말라 후티아빠 / 19명 참가

■뉴저지 실버미션스쿨 제30기

- 일정 : 2018년 8월 20일(월) 개강~ 11월 5일(월) 종강
- 장소 : 한무리교회(221 Schraalenburg Rd. Closter, NJ)

총체적선교 SMF-JUTIAPA

3N MOVEMENT - NEW LIFE, NEW HOPE, NEW VILLAGE

협력선교사 모집

THE LORD'S CALLING OF YOU

“주님은 당신을 실버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실버선교회 총체적 선교지 과테말라 후티아빠에서 함께 사역할 전문인 협력선교사를 모집합니다. 협력선교사는 각자의 은사와 전문지식을 따라 복음전파, 사회봉사, 환경보호의 총체적인 사역을 각각 구체적으로 개진하며 선교회와 더불어 팀사역을 할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후티아빠는 한인선교사의 불모지대입니다. 주님은 후티아빠에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뉴저지 실버선교회 (SILVER MISSIONS FELLOWSHIP)

408F PAULDING AVE. NORTHVALE, NJ. 07647

대표: 양춘길목사 | 운영이사: 이장: 원성우선교사 | 실버선교사훈련원 원장: 김용철목사
연락처 | 부대표: 박로식선교사 (201) 403-1350 | roshikpark@yahoo.com



과테말라 선교에 접목된 새마을 운동

(총체적 전문인 복음사역)



우리 부부는 지난 2018년 3월 6일 워싱턴 제일교회 정재호 목사님 팀, 그리고 과테말라 산칼로스 대학과 꼬방 시청에서 합류한 현지인 등 12명이 시청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새마을운동을 접목한 선교지인 마야 인디안 원주민 마을인 차마(Chama)를 방문 하였습니다. 차마 마을은 과테말라 수도 국제공항에서 내려 북쪽으로 차로 포장도로 6시간 그리고 아주 험악한 비포장도로를 2시간 이상을 달려가야 하는 아열대 원시림이 그대로 있는 오지 마을입니다. 전기, 상수도 등 문화시설이 없는 곳입니다. 2,000여 명의 농민이 사는 큰 마을로 초등학교, 중학교도 하나씩 있고 간이 보건소도 있는 마을입니다.

1. 새마을운동을 접목시키게 된 동기

필자는 그간 과테말라 산칼로스 국립대 (꼬방)의 초빙교수로서 미국 주립대학의 Extension program을 도입하여 대학과 공동으로 가난한 원주민 마을에 젓염소를 분양하며 교수들과 대학생들이 함께 마을을 방문, 농민들에게 젓염소 사육과 치즈 만드는 기술 등을 교육해 왔습니다. 동시에 현지인 Vicky협력목사와 함께 젓염소 분양마을에서 교회도 개척하면서 총체적 농촌 개발사역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과테말라 같은 미개발 국가의 농촌 지역 개발은 미국적인 것보다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2. 미국 정부 지역개발 전문가를 동역자로 보내주시다

그때 (2015년) 하나님께서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농촌개발 전문인 사역팀을 동역자(partnership)로 새로 보내 주셨습니다. 그 중 팀장인 장학근 장로님은 미국 정부에서 36년간 지역개발 전문가로 새마을운동도 잘 알고 계시어 그분께서 대학과 시청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영상과 세미나를 통해 소개하였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3. 주 과테말라 한국대사 대학(꼬방) 초청 새마을 운동 강연

새마을운동 정신을 과테말라에서 구체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2016년 3월 주 과테말라 한국 대사님(이운호, 경제전문가)을 초청, 대학에서는 본부에서 특별히 내방한 총장등 대학 고위급 교수들과 지역정부 시장, 대학 교수, 학생 등 제한된 초청 청중들을 향해 새마을운동을 소개하며 강연을 하여 주셨습니다. 대학당국과 시청에서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4. 과테말라 교수 한국정부초청 새마을운동 훈련

2016년 4월 한국 구미에 있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을 방문하여 과테말라 교수들의 새마을운동 훈련을 요청 하였습니다. 대표 이지하 대사님의 특별한 배려로 그해 12월에 과테말라 산칼로스대 꼬방 캠퍼스 부총장, 꼬방 시의원, 대학생 등 3명이 한국 정부 장학금으로 2주간 새마을운동 훈련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5. 새마을운동 차마(Chama)에서 시작

2017년 3월 한국에서 훈련 받고 돌아온 세 명이 중심이 되어 꼬방 시청부와 산칼로스국립대(꼬방 캠퍼스)와 필자등 세 단체가 MOU를 맺어 공동으로 함께 시청부에서 선정해 준 마야 원주민 마을인 차마(Chama)에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6. 과테말라 교수 4명 제2차 한국에서 새마을운동 훈련

2017년도에 대학교수 3명 지방정부 공무원 1명 등 4명이 2017년 11월에 2주간 한국정부 초청으로 새마을 훈련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7. Saemaul Workshop 개최

2018년 3월 9일 대학에서 새마을운동 훈련자들(7명)을 주축으로 차마마을 새마을운동을 위한 'Saemaul Workshop'을 개최 하였습니다. 신학(정재호목사), 의학, 축산학, 사회학, 지역개발 등 진지한 주제발표와 의논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Saemaul Conference(새마을 컨퍼런스)로 확대하여 교수들과 학생들도 참여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Saemaul Conference가 계속 됨으로 장기적 새마을운동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8. 차마마을에 역사적인 장마당이 처음으로 열린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변한 일이 시정부가 차마마을로 들어가는 아주 험한 길 10Km 도로를 확장한 것입니다. 마을버스가 새로 생기고 농산물 판매 장마당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큰 도시 트럭을 가진 독점업자에게 싼값으로 팔던 농산물을 제값으로 판매하고 문화생활품도 싸게 구입하게 되므로 원시적 생활에서 최소한 문화생활로 전환되는 Turning point를 맞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간 대학에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차마마을 방문 교육(University Extension program)을 실시함으로 격리된 마을 농민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계기도 된 것입니다.

장차 훌륭한 기독교적 지도자 양성을 위해 머리가 우수한 중학생 5명에게 장학금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9. 앞으로 할 일 (합의된)

- a. 중학교에서 성경교육 등 Campus ministry
- b. 차마마을에는 이미 교회가 있어 교회개척은 하지 않고 계절적으로 현지 목사와 지도자 훈련
- c. 중학교에서 여름 영어성경 camp
- d. 중학교 건물 개축 (시청, 마을, LGM공동투자)
- e. 장학사역 확대 (꼬방시에 있는 국립농업고등학교로 유학 알선, MOU 진행 중)
- f. 대학 extension program으로 젓염소 등 농업교육, 공중보건교육

이러한 모든 것이 한국에서 새마을운동 훈련을 받고 돌아온 후 생긴 일입니다.

새마을운동이 과테말라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 사역, 총체적 사역에 잘 접목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영/이덕주 선교사 드림
(과테말라 산칼로스 국립대 초빙교수)

2018년 3월 19일



뉴욕실버선교회

<http://nysilvermission.com>

■뉴욕실버선교학교 제26기 선교훈련이 2018년 2월 26일(월)부터 4월 30일(월)까지 뉴욕 늘기쁜교회(김홍석 목사 시무)에서 10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성대히 종강예배를 드렸다. 26기 19명의 단기선교사 파송식과 단기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흥호 선교사의 선교보고가 있었다.

■제26기 뉴욕실버 단기선교 : 제26기 단기선교 팀 19명은 선교단장 최윤섭 목사와 선교팀장 이형근 장로의 인솔로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과테말라 치말떼낭고에서 5박 6일간 사역을 실시하였다. 의료사역팀과 한방사역팀 및 안경사역팀은 각각 2개 팀으로 나누어서 사역하였고 VBS, 미용, 사진사역 등으로 많은 선교지 주민들을 섬기면서 현지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사역의 현장마다 은혜가 넘치고 선교지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 안에 하나되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며 건강하게 사역을 마쳤다.



■뉴욕실버선교학교 제27기 훈련 : 8월 27일(월)~10월 29일(월)

■뉴욕실버 27기 단기선교 : 11월 5일(월)~11월 10일(토) 과테말라 치말떼낭고

호주시니어선교회(SMA)

<http://cafe.daum.net/smaustralia>

■3월 정기모임

- 일시 : 3월 23일, 24일 1박2일 기도수련회 / • 장소 : 부활 기도의 집
- 강사 : 김기태 목사(부활 기도의 집 원장), 송영근 선교사(한의사, 시니어를 위한 건강강좌)

■4월 정기모임

- 일시 : 4월 30일(월) 저녁 7시 / • 장소 : 주안교회
- 강사 : 김미숙 선교사(키르기즈스탄 선교사, 시니어선교한국 협력선교사) 선교 간증 및 말씀

■6월 선교집회

- 일시 : 6월 8일~9일 양일간 / • 장소 : UTC Chapel
- 강사 : 정바울 선교사 (레바논 시리아 난민사역)
- 주제 : 왕(Kingship)같이, 아들(Sonship)같이 선교하라

■호주시니어선교회 2018 Vision Trip (참가자 모집 중)

- 일정(예정) : 2018년 11월 중순(8~10일)
- 비용(예정) : US\$ 2,000
- 인원(예정) : 10명 내외
- 지역(예정) : 캄보디아 또는 인도네시아(시니어선교사들의 사역 현장)
- 접수마감 : 2018년 8월 31일
- 문의 : 김측도 장로(0405 148 698), 이갑용 장로(0466 893 094)

6월 선교집회

주제 : 왕(Kingship)같이, 아들(Sonship)같이 선교하라



정바울 선교사 약력

- 선교지: 레바논 (2011년~현재), 이집트 (1997년~2010년)
- 사랑의하루스 사역 대표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사역)
- 아랍권-페르시아인 유망 지역 난민 사역 네트워크, 아랍어권 대표
- Global Community Health Evangelists, 중동지역 코디
- ACTS 선교대학원, 아랍문화연구소, 현장연구원

말씀: 첫 패널: 왕같이 선교하라
둘째 패널: 아들같이 선교하라
성경: 창세기 1:26-28

일시: 6월 8일 ~ 9일(금, 토), 저녁 7시
장소: UTC Chapel
(16 Masons Dr. North Parramatta)
대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

호주 시니어 선교회, 2018 Vision Trip

- "이스라엘 Study Tour" 에 이어 선교를 향한 열망을 일으킬 Vision Trip에 참여할 성도들을 모집합니다.

- 여행일정(예정): 2018년 11월 중순 (8~10일)
- 비용(예정): US\$2,000
- 인원(예정): 10명 내외
- 지역(예정): 캄보디아 또는 인도네시아 (시니어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
- 접수 마감: 2018년 8월 31일



호주 시니어 선교회
(Senior Mission Australia)

문의: 김측도 장로 (0405 148 698)
 이갑용 장로 (0466 893 094)
seniormissionaustralia@gmail.com

한국예향침술선교회(예향회)

■ 2018년 2월 ~ 6월 사역 소식

- 2월 9일(금)~3월 3일(토) : 연재춘 회장/양기열 권사 필리핀(앙겔레스 클락) 센터 준비 사역
- 2월 12일(월) : 케냐 • 우간다 사역보고 (동역 12명/ 사역자 5명/ 13개 지역/ 침술 2,112명 섬김)
- 2월 23일(금)~3월 20일(화) : 라오스 • 태국 사역 (동역 8명/ 사역자 4명/ 현지인 목회자 3명/ 8개 지역/ 침술교육 16명/ 침술 1,377명, 사진 1,377명 섬김)
- 3월 22일(목)~6월 7일(목) : 서울경기 시니어선교학교 12기 교육에 회원 6명 등록(김신국. 서진옥. 이명희. 이희우. 이홍윤. 차신득)
- 4월 2일(월) : 2/4분기 실행위원회의(13명 전원 참석하여 필리핀센터 운영 방안, 침구선교학교 모집 운영, 중보기도팀 보완, 사역 전반 점검 및 정리 건 토의/ 소위원회 구성 구체적으로 검토기로 의결)
- 4월 16일(월)~5월 13일(주일) : 모로코 • 타지키스탄 사역 (동역 7명 / 사역자 7명/ 현지인 목회자 2명/ 침술교육 24명/ 침술 1,822명 섬김)
- 4월 23일(월)~5월 6일(주일) : 네팔 사역 (동역 12명/ 사역자 5명/ 현지인 목회자 2명/ 2개 지역/ 침술 672명 섬김)
- 5월 19일(토)~6월 9일(토) : 필리핀 사역 (동역 10명/ 침술 교육과 섬김)



태국 침구교육생



아프리카 마사이족 섬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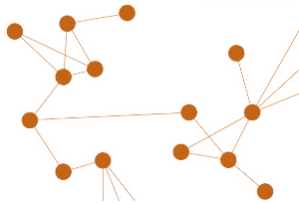
네팔 현지교회 섬김

■ 향후 사역 계획

- 6월 1일(금)~6월 28일(목) : 조지아 • 카자흐스탄 사역 (동역 7명/ 침 교육과 섬김)
- 8월 27일(월)~9월 20일(목) : 요르단 • 터키 사역(침 교육과 섬김)
- 8월 말~9월 말 : 키르기즈스탄 • 카자흐스탄 사역

✦ 기도제목

- 매주 월요모임의 예배와 교제와 교육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고 침구술의 지혜가 늘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 2018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중앙아시아 • 중동 • 서남아시아 사역들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욱 깊고,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 세워진 필리핀(클락) 센터가 예향회와 현지 사역자와 현지인들과 협력하여 교육과 훈련과 섬김을 통해 지역의 복음화와 열방을 향한 해외 사역의 전진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관계 중심의 사역으로

글 : 최혜숙 선교사(이모작선교네트워크)

선교복덕방이란 별명을 가지고 <이모작선교네트워크>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8년째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부동산중개업의 의미로 비유하는 것은 아무래도 딱 적절한 비유는 아닌 듯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종 그렇게 부른다. 그러나 이 사역은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단 한 번의 소개와 연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펴야 하는 일이다. 상담자들을 사역지에 보내기까지 선교사로서의 훈련과정을 안내 해주며,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며, 준비해야 할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가이드 해주는 역할이 따른다. 한 분 한 분과 수없이 만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진행을 돕는다. 어떤 분은 2~3년 정도, 그 이상 기간을 요할 때도 있다. 그런 의미로 볼 때는 가끔 선교지로 시집 장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가질 때도 많다. “이 사람들이 가서 잘 적응해야 할 텐데, 우리와 다른 생활 환경, 문화와 언어를 접하게 될 것이고, 낯익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익숙한 곳을 떠나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야 할 이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단순한 작업이나 계산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미국이나 호주에는 선교에 헌신하려는 시니어 세대들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Finisher's Project나 호주의 Second Wind 같은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선교 지원자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 그 안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들을 검색하여 자기에게 맞는 사역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나라들은 워낙 땅이 넓다 보니 직접 방문하거나 만나서 상담하고 안내를 받기에 그리 쉽지 않을 것이 사실이다. 서구의 시니어 세대들은 우리보다 비교적 인터넷 사용률이 앞서기에 그와 같은 방법이 익숙하고 편리할 것이며,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우리 시니어선교한국에서도 그 방법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시되었지만, 우리의 결론은 ‘아니오’였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 거기에는 신뢰 문제도 있고, 검증 문제도 있고, 개인 차가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제 3자의 객관적인 판단과 분별을 요할 때도 많이 있다. 또한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문제들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훈련을 안내해야 할 일도 많다. 예를 들어 언어, 선교 훈련, 기능 훈련 등이 있다. 인터넷 활용 미숙,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이모작선교네트워크에서는 되도록 개인 개인의 ‘맞춤식 선교’를 지향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사역은 더 많은 시간과 수고와 관심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렇게 만남과 교제와 훈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국인들만이 특이하게 갖는 정이 쌓이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라는 유대감과 신뢰를 서로 갖게 된다. 선교를 ‘일 중심’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사무적이며 기계적인 업무처리가 훨씬 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이 모든 사역의 시작이며 형제의 연합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것이라 확신을 갖는다. 



『이모작선교네트워크』는 시니어선교사 지원자의 상담 및 선교지 연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Tel : 010-8490-1003(최철희 선교사) 또는 070-7656-4080(사무국)

e-mail : nissichoi@gmail.com (최철희 선교사)

시니어선교한국 기도제목

- ①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시니어선교한국, ②국내이주민들을 품는 시니어선교한국, ③남북한 통일을 예비하는 시니어선교한국, ④한국교회와 다음세대에 선한 영향력과 책임을 다하는 시니어선교한국의 비전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 서울경기 지역을 비롯하여 각 지역 시니어선교회가 성령 안에서 독립성과 연합성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소서
- 각지역의 시니어선교회마다 중보기도팀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 협력선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사역의 열매, 영육의 건강과 신변 안전과 가정의 평안을 지켜 주시길, 특별히 중앙아시아 K국 김옥열 목사 건강 회복을 위해
- 시니어선교한국을 이끌어가는 모든 리더십과 스태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 공석 중인 이사장과 지역교회를 아우를 수 있는 이사진의 영입을 위하여, 조직의 재정비와 확충을 위해
- 이모작선교네트워크 : 지원자들의 성향과 전문성, 하나님께로 받은 비전 등을 잘 파악하고, 지혜롭고 성실하게 상담하여 사역에까지 잘 연결할 수 있도록
- 7/4~7/7 협력선교사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 8월 15일~17일에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있을 2018 가족수련회를 위해서 : 각 프로그램, 강사들 메시지에 기쁨 부으시고, 사역비전을 공유하고 진정한 연합과 유대감을 다질 수 있는 가족수련회 되도록
- 2018 하반기 시니어선교학교들을 위하여:
 - 서울경기 13기 (10/2~12/4, 성민교회)
 - 대전 10기 (10/11~11/29, 대덕한빛교회)
- 협력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예방회, PAUA, 뉴욕/뉴저지/호주/뉴질랜드(7/28 창립예정) 등 해외 한인 실버선교회
 - 한국외국인선교회(전철한 선교사): Train & Multiply,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 •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하도록
 - 보은 예수마을(강동진 목사): 의성 공동체 설립 순조롭게 진행하고, 좋은 모델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 보성 복내전인치유센터(이박형 목사): 선교사들을 위한 치유 program을 통해 영적 치유의 좋은 쉼터가 되도록

시니어선교한국 운동에 사역과 후원으로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70-7656-4080, 070-7624-1215

시니어선교한국 협력선교사

- 캄보디아 : 박춘석/김혜란, 손팔원/장인숙, 염산국/황은현, 박기철/김소연
- 중앙아시아 K국 : 김옥열/유혜숙, 김미숙, 조영승
- 미얀마 : 허영/김일숙, 장학철/김진교, 김영찬/정미
- 서남아시아 I국 : 전형진/문명옥, 최향신, 이규중
- 인도네시아 : 김영훈, 주경윤/박선희, 이은지
- 일본 : 김인현
- 남아프리카공화국 : 고광중/최유미
- 태국 : 백인길/이옥신, 김효생, 안경한/성현숙
- 호주 : 이갑용/오희순
- 에티오피아 : 정연구/조복남
- 탄자니아 : 손홍식
- 브라질 : 유현덕/임윤자
- 몽골 : 현영신
- 이스라엘 : 이귀향
- 네팔 : 김경선
- 말레이시아 : 최청인/김인순, 김옥희, 김영옥
- 국내 • 순회사역 : 홍영기/이영희(국내), 이배영/박연옥(국내), 김용욱/박희숙(국내), 이광연/전점애(국내), 김은가/조춘자(필리핀), 광신/차용자(케냐, 인도네시아), 박명준/김미연(중앙아시아 K국), 서희돈(필리핀, N국), 주향래(필리핀, 중국, 동남아), 연재춘 • 송치영 • 심동엽 • 이문수(순회 침술재능기부)

■ 이사회비 • 후원헌금 납부 안내 ■

(계좌 변경 / 기존 통장도 사용 가능)

KEB하나은행 418-910026-95104 시니어선교한국

국민은행 549801-01-219684 시니어선교한국

우리은행 1005-503-500819 시니어선교한국

[일반회원] 후원헌금은 월 5천원/1만원 또는 연 5만원

이사회비(2018년 2월 ~ 5월)

권혁일 김명희 배순호 신효현 이광연 이미홍 이시영
이홍주 전철한 정경훈 정승현(새순교회) 최철희 허종학

일반회원 회비 및 기타 후원헌금

김광근 김문숙 김순례 김애경 김용문 문옥일 박상필
박송희 송중섭 연재춘 이이호/신동완 이호재 임대택
임옥자 정미란 조혜정 천소원

협력선교사 회비(2018년 2월 ~ 5월)

박기철/김소연 박용부 안경한/성현숙 연재춘 유현덕/
임윤자 이규중 이문수 주경윤/박선희 현영신

특별헌금

이미홍 최철희

*연합회비 : 순천시니어선교회 한국예향침술선교회

Senior Mission Newsletter

시니어선교한국 사무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C동 2511호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

◆ 홈페이지 : <http://www.seniormission.or.kr>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seniormissionkorea>

◆ 구독 신청 및 기사 제공 : senior@seniormission.or.kr ☎ 070-7656-4080 or 070-7624-1215